

민 성 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욕망’의 상징적 표현으로서의 「門」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4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조각전공

박 지 연

## 논문개요

인간이 가지는 욕망에 대한 해석은 이를 연구한 철학사상에 따라 상반된 견해를 갖는다. 예를들어 서양의 고전 철학에서는 인간의 행복을 욕망의 억제와 무관심에서 오는 것으로 여겨 이를 비난하거나 거부하였다. 그러나 현대철학은 오히려 삶의 동인(動因)으로서 욕망에 대해 긍정의 가치를 부여한다.

즉, 욕망의 문제는 인간의 삶에서 필요악으로서 존재하는 탐구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본인의 작품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욕망을 '문'의 형상과 그 출입행위로 인식하고 표현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본인의 작품을 대상으로 이론적 배경과 형태적 근거, 표현방법 및 의도 등을 서술한 것으로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및 범주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II 장 본론에서는,

1. 작품의 정신적 배경으로 욕망의 철학적 접근을 통한 고찰과 그 대상으로서 '유토피아'의 의미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이를 본인이 '문'의 현상으로 인식하게 된 근거를 밝혔다.
2. 작품의 형태적 근거로서 '문'이 본인의 작품에서 재해석되는 과정에 대하여 논하고 그밖에 작품에 도입된 소재와 그 의미를 서술하였다.
3. 작품 분석에서는 작품 도판과 함께 작품의 표현 재료와 기법, 의도 등을 서술하였다.

제 III 장 결론에서는 본인이 작품을 통해 표현 하려했던 인간의 욕망, 그리고 예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작업 자세를 밝혔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3
1. 작품의 정신적 배경 .....	3
1) 인간의 욕망과 유토피아 .....	4
2) 욕망의 상징으로서의 門 .....	8
2. 작품의 형태적 근거 .....	10
1) 門의 표현 .....	10
2) 門과 공간, 도입된 소재의 의미 .....	12
3. 작품분석 .....	15
III. 결론 .....	30

## 참고 문헌

## ABSTRACT

## 도 판 목 차

- 【도판 1】 「파랑새 증후군 I」, 압축합판, 혼합재료, 144×21×86cm, 2003 ..... 16
- 【도판 2】 「파랑새 증후군 II」, 스테인리스 스틸, 혼합재료 2000×147.5×30cm, 2002 ..... 18
- 【도판 3】 「파랑새 증후군 III」, 아크릴, 시트지, 합판, 오브제 40×40×40cm, 2003 ..... 21
- 【도판 4】 「파랑새 증후군 IV」, 합판, 무늬목, 혼합재료 25×25×45cm, 2003 ..... 23
- 【도판 5】 「파랑새 증후군 V」, 철, 오브제, 100×75×110cm, 2003 ..... 25
- 【도판 6】 「파랑새 증후군 VI」, 아스텔, 혼합재료, 35×55×70cm, 2003 ..... 27
- 【도판 7】 전시광경 ..... 29

# I. 서론

예술가와 예술에 대한 정의는 그 시대와 관점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이며 조금씩 변화 되어왔다.

고대, '기술'(techne) 이라는 일차원적 의미로부터 시작된 예술은 근대를 거쳐 현재, 인간의 기본적 행동의 하나로서 직관적이고 정신적인 작용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결과적으로 예술의 주체인 예술가의 존재에 초점을 맞춘 해석으로 예술은 예술가가 현실의 삶에서 정신적으로 보다 한 차원 높은 세계를 지향하는 마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은 이것을 비단 예술가만의 특성으로 이해하기보다 예술가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가지는 욕망을 인간의 전반적 특성으로 보고 이에 주목하게 되었다.

욕망은 그 특성상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망으로부터 시작하여 돈, 명예, 예술의 추구등 정신적인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고차원적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인간은 이때,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정체성을 찾아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잘 다스리지 못했을 경우 즉, 얻고자 하는 대상이 너무 멀리 있을 경우 오히려 자신과 현실을 부정하고 정체성의 혼미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양면성 때문에 욕망의 문제는 긍정과 부정의 양극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동시에 해석 불가능한 작용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 예, 본고의 목적은 인간이 가지는 욕망의 본질을 밝혀 본인의 진정한 이상

향의 모습과 넓게는 인류 전체가 가지는 유토피아이즘의 의미를 환기시키고자 함이며 더불어 본인의 작품에서 그에 합당한 조형언어를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에 따른 연구방법 및 범주로서 이론적 측면에서는 라캉을 비롯한 현대철학의 예를 들어 욕망의 발생원리와 긍정적 측면에 대해 논하고, 반대로 고전철학에서의 부정적 해석을 비교 분석 하므로써 작품의 이론적 근거를 서술하였다. 또한 형태적 측면에서는 본인이 욕망의 문제를 '문'의 형상으로 재해석하여 작품으로 조형화되는 과정을 <파랑새 증후군> 연작 6점을 통해 밝히고 있다.

## II. 본 론

### 1. 작품의 정신적 배경

‘무엇을 하거나 가지고 싶어 간절히 바라고 원함, 또는 그 마음.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sup>1)</sup> 이것을 우리는 욕망(欲望·慾望)이라 부른다.

현재에 이르는 본인의 생은 이러한 욕망의 과정에 있었다.

어린 시절의 한 때, 본인의 꿈은 옆에앉은 친구 보다 더 좋은 크레파스를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 것이 된 크레파스가 하찮은 소유물로 전락하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그 이후 중, 고교 시절 역시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만이 모든 꿈의 실현인 듯 여겼으나 대학생이 된 본인에게 현실이 된 그 꿈은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때문에 그 이후에도 여전히 더 좋은 전공, 더 나은 학교를 찾아 방황하였고, 지금도 현재 보다 더 나은 그 무엇을 찾고자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지인은 본인을 ‘파랑새 증후군’<sup>2)</sup>에 비유한 적이 있었다.

---

1) 「최신 국어사전」, 이상사 편집부 역, 이상사, 1986, 서울

2) 독일의 극작가 메이털 링크(Mauice Maeterlink, 1862~1949)의 희곡 ‘파랑새(Blue Bird)’에서 은유된 표현으로 치르치르와 미치르 두 아이가 행복을 찾아준다는 파랑새를 찾아 꿈속의 여러 나라들을 헤메어 다니지만 결국 파랑새를 찾지 못하다가 비로소 자신들의 집 마당에 있는 새장속의 새가 바로 파랑새임을 깨닫는다는 내용의 동화극. 이 동화극이 발표된 이래 ‘파랑새’란 곧 행복의 상징으로 인용되었다. 최근 증후(Syndrome)와 연관되어 지면서 욕망의 생성을 적절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현실의 모습에 권태를 느끼는 인간상을 표현하는 심리학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같은 비유는 이후 본인에게 본인을 포함한 다수의 현대인들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한 ‘욕망’의 본질에 관해 의문을 가지게 하였고, 이를 작품으로 표현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욕망의 문제는 철학에서 자주 문제화되었다. 왜냐하면, 그 본성은 의심할 바 없이 모순적이고, 모든 경우에서 모호하기 때문이다.

본인은 욕망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통해 그 발생원리를 분석하고 더불어 욕망에 대한 긍정과 부정 입장에서의 철학이론을 살핌으로서 본인이 이를 문 의 상징성과 연관 짓게 된 근거를 밝혀 작품에 대한 정신적 배경을 형성하였다.

#### 1) 인간의 욕망과 유토피아

흔히 ‘채우기 불가능한 구멍난 물통<sup>3)</sup>’으로 욕망의 특성을 이야기한다.

즉, 욕망의 문제는 채우는데도 여전히 비어있는 물통과 같은 원리를 지닌다는 것이다.

라캉(Jacques Lacan, 1901~1981)<sup>4)</sup>은 이에 대해,

욕망은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다. 얻으려는 욕망은 그것을 손에 넣은 순

---

3)플라톤(Platon, 427-347)의 『고르기아스(Gorgias)』편에서 유래됨,  
<http://www.masilga.com/philosophy/Concept/synconcepts19.asp#1>

4) 자크 라캉 (Jacques Lacan, 1901~1981) - 프랑스의 철학자·정신분석학자. 파리 출생. 파리의과대학을 마치고 박사학위 논문으로 <편집증적 정신병과 성격과의 관계>(1932)를 발표한 이후부터 프랑스 정신분석학계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음, 파리 프로이트학교를 세우는 등,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을 재해석하여 주체와 욕망의 문제를 주요 관심사로 삼았다. 20세기 후반부, 철학과 예술의 기법과 통하는 라캉의 이론은 현재 정치, 사회, 문화, 예술분야로 까지 확장되고 있다.

간 저만큼 물러난다. 처음에는 대상이 실제(實在)처럼 보였지만, 대상을 얻는 순간 허상이 되기 때문에 욕망은 남고 인간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다.<sup>5)</sup>

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이러한 욕망의 발생 단계를 욕망의 대상을 실재라고 믿는 과정인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로 구분하여 밝혔다.<sup>6)</sup>

예를 들어, 서 있는 사람의 욕망은 '앉고 싶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내 그 욕망이 채워지려 할 때 -앉게 되었을 때- 사람의 욕망은 다시 '앉고 싶었던 것만은 아니구나'하는 것을 느낀다(어긋남-상징계). 그래서 다른 욕망을 욕구-놓고 싶다거나 등등-하여 자신의 욕망을 계속적으로 지연시키게 된다(실재계)는 것이다.

즉, 대상이 완전히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리라 믿고 다가섰는데, 그 대상은 흘러넘쳐서 늘 차액이 남는다. 그 차액 때문에 욕망은 충족되지 못하고 남아서

---

5) Jacques Lacan, 「욕망이론」, 권택영 역, 문예출판사, 1994, 서울, PP.11~21

6) \*상상계(the imaginary)-는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어린아이가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총체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처럼 환상을 모르는 주체의 단계다.

아이가 보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는 자신의 '의미'이며 일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때 아이는 성차(性差)를 인식하는 것과 동시에 언어를 발견하게 되면서 상징계(the symbolic)로 진입하게 된다.

\*상징계(the symbolic)-어린아이가 언어를 사용하는 질서의 세계로 뛰어드는 단계. 아이는 현실을 '충분하게' 상상적으로 소유하던 세계에서 '언어'라는 '공허한' 세계와 만난다. 이제 아이는 어떠한 대상을 충분히 완전히 소유하는 대신에, 잠재적으로 무한한 언어적 연쇄를 따라 하나의 기표에서 다른 기표로 이동할 뿐이다." 이러한 기표들의 무한한 운동이 바로 라캉이 말하는 '욕망'의 의미다. 욕망은 결핍에서 비롯되고 그 결핍을 메우려 부단히 노력하지만, 언어 자체가 결핍(차이와 부재)에 의거해 작동하기 때문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욕망인 것이다.

\*실재계(the real)- '언어'를 사용한다는것은 항상 의미작용의 영역 너머에 존재하는, 즉 상징적 질서 바깥에 존재하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과 분리되는 것을 뜻하는데, 라캉은 이 영역을 '실재계'라고 부른다. 상상계(바라볼만 있는 세계)와 상징계 (보여짐을 의식하는 세계)가 뫼비우스 띠처럼 연결된 것이 실재계다.

다시 대상을 추구하게되며, 이 차액이 바로 삶을 지속시키는 동인이 된다.

이러한 설명의 이해를 돕는 예로 아프리카의 '이구아나'라는 뱀을 들 수 있다.

그 도마뱀은 찬란한 색채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도마뱀에게 화살을 쏘는 순간 영롱함은 사라지고 칙칙한 색으로 변한다.<sup>7)</sup>

다시 설명하면 이구아나는 '욕망의 대상'이요, 빛을 잃고 손에 남은 칙칙한 것은 '현실'이다. 욕망의 대상에서 현실로 옮겨가는 과정이 욕망의 공식<sup>8)</sup>이요, 원리이다. 때문에 욕망은 완벽한 충족을 모르기에 지속된다.

결론적으로 라캉은 욕망이 그 원리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삶의 동인(動因)으로서 욕망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해석만 있는것은 아니다. 욕망은 고통을 동반하며, 부족과 결핍의 감정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을 거부하는 듯이 보인다. 왜냐하면, 한 욕망이 겨우 채워지자 마자, 다른 욕망이 서둘러서 다시 생겨 다음과 같은 양가 감정을 지닌다. 즉 욕망은 만족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기도 한다.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이전하면서 욕망은 무한정적이고, 켤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며, 심지어 숙명적으로 근본적인 불만족상태 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의심할 것 없이, 어떤 전통이론은 욕망을 비난하고, 거부하는 자세로서 세속적 욕망에 대한 억제와 무관심으로부터 행복을 추구하려 한 것이다<sup>9)</sup>. 하지만 욕망에 대한 모든 철학적 이론들은 욕망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려는 '대상'이 있기에 생성

---

7) 정란기, 「욕망과 영화이론에대하여」, <http://www.italcinema.com/review/review3.htm>

8) 라캉은 'S/ <a' 라는 욕망의 공식을 도출한다.

즉, S/는 주체이고 a 는 주체로 하여금 욕망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허구적 대상이다.

<a>는 대상이 결코 주체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결핍'이다.

9) 고대 서양의 스토아 학파(Stoikoi School) 와 에피쿠로스 학파(Epicurean School)는 체념의 도덕과, 어떤 면에서 보면 검소의 도덕을 제시하고 인간 욕망을 잘 규제하여 사용하는데 행복의 조건이 있다고 보았다.

된다는 사실에 기초 하고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에서 욕망과 일치되지 못하는 '대상'은 어떤 것일까?

본인은 그것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유토피아'<sup>10)</sup>라고 보았다.

어원상 '어디에도 없는 곳'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토피아는 인간에게 있어 어디에도 없으나 끝없이 가려고 하는 이상향(理想鄉)으로 인간욕망의 원천이된다.

각기 다른 욕망의 주체로서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의 모습은 그 외양뿐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들 즉, 욕망의 취지, 접근의 용이성 여부, 또는 시 공간적 소재 면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어릴적 본인에게겐 '새 크레파스'이고 플라톤에 있어서는 '이데아'요, 기독교에서는 '에덴의 동산'일 것이며 도교에서는 '무릉도원'<sup>11)</sup>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과 그 근간이 되는 유토피아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유토피아' 즉, '예술' 과 '예술가'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다.

예술가에 관한 프로이드의 생각을 빌리자면 그는,

---

10) '유토피아' 라는 용어는 사전적의미로 '장소'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토포스(to-pos)와 실사와 양질을 뜻하는 접두사 'eu'와 부정을 나타내는 'ou'라는 두 개의 접두사가 합성된 단어로써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유토피아라는 단어는1526년 토마스 모어(Thomas More,1478~1535)가 이상적 사회를 주제로 했던 그의 정치적 공상소설을 '유토피아'으로 명명하면서 처음 생겨났다. -리처드 해리스, 「파라다이스」, 손덕수 역, 중명, 1999, 서울, PP.52~53

\*모어는 정치적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유토피아'를 사용했지만 본인은 보편적 개념으로서, 초월하여 가고자 하는 대상 즉, 이상적인 '천국(paradice)', '이상향(理想鄉)'을 통칭하는 단어로 사용 하였음을 밝힌다.

11) 무릉도원(武陵桃源),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별천지. 사람들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상향(理想鄉). (준말)도원(桃源).

예술가란 과도한 본능적인 충동 때문에 실제 현실과 쉽게 화해할 수 없는 존재<sup>12)</sup>

라 정의하였다. 즉, 예술가는 환상의 세계로 눈을 돌려 거기서 그 욕구의 직접적인 만족을 보상해 주는 대체물을 찾는다는 것이다.<sup>13)</sup>

때문에 작가들은 일상의 삶과 소박한 사물들로부터 아직 인식되지 않은 새로움을 발견하려 하고 이를 통하여 각자의 유토피아에 다다르려는 욕망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예술은 현실에서 '새로운 무엇'에 대한 욕망을 각인시키고, 그로써 현재속에 유토피아를 있게 하는 존재방식을 취한다.

현실보다 더 높은 의식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예술의 성격은 이러한 눈지로 보았을 때 이루어지지 않은, 즉 앞으로 만나고자하는 그 무엇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예술'은 현실에 있어 하나의 '유토피아'로서 존재하며 이를 창조하는 작가군 역시 작업하는 행위는 곧, 현재를 초월하여 유토피아에 이르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 2) 욕망의 상징으로서의 문

예술은 감성적인 대상을 통해서 비 감성적인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작용을 근거로 하고있지만 그 표현을 직접적으로 혹은 완벽하게 행하지 않고 대상 속에 암시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sup>14)</sup>

---

12) 아놀드 하우저 「예술사의 철학」, 황지우 역, 돌베개, 1994, 서울, P.57에서 재인용,

13) Ibid,

14) 와타나베 마모루, 「예술학」, 이병용 역, 현대미학사, 1994, P67

때문에 예술적 표현은 현실을 초월한 무엇인가를 표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징법을 사용한다.

상징은 서로 의미와 형식에 있어서 연관성이나 유사성을 갖지 않는 두 사실을 매개시키는 인식의 한 형식이며 그 결과로서 의미를 지시하면서 동시에 개념전달을 위한 도구, 즉 존재와 사유 사이의 거리를 메꾸는 방법이다.<sup>15)</sup>

우리말에는 출산(出産), 출세(出勢), 입학(入學), 입춘(入春)등 새롭게 무엇을 시작하거나 일정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행위에서 '들어가고'(入) '나오는'(出) 의미의 표현이 쓰인다. 이는 인간이 생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대상을 찾아 통과와 전환, 선택 등을 반복하는 모습이 은연중에 문의 출입현상을 연상케 하여 발생한 상징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일상적 삶 안에서 수 없는 문의 현상을 거친다. 방문에서부터 외부와 통하는 대문의 통과 등의 물리적 현상으로부터 탄생, 결혼 등 정신적 시공간의 출입의미도 포함된다. 즉 인간의 생은 그러한 통과제의(通過祭儀) 말하자면 연속적인 입사식(入社式)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로 통과와 동시에 전환되어가며 완성되는 것이다. 때문에 '문'은 '통과'와 '전환'의 보편적 상징으로 표현되어 중요시 인식되었다.<sup>16)</sup> 그런데 '통과'의 기능을 가지는 문은 입구이자 동시에 출구가 되는 역설적 구조를 가진다. 즉 하나의 문에서 안에서 밖으로 나가고자, 혹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자 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인간의 생에서의 욕망도 일상의 문처럼 원하든 그렇지 아니하든 스스로 생성되

15) 이성심, 「門의 상징적 표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서울, P17

16) 사람들은 예로부터 '통과'의 과정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출산때 금줄을 거는 의식이나 성년식처럼 일정한 시간을 통과할 때 거치는 의식, 입춘방(立春榜)을 붙이는 일 등 수많은 의식들이 그 예이다. -정신아, 「문의 상징적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2, PP.6~7

어지는 것이며 거쳐야하는 관문으로서 존재하지만 또 한편으로 긍정과 부정의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욕망을 문으로 연상하게 된 것이다.

또한 문은 '선택'의 상징도 가지고 있다. 인간은 '통과' 과정과 함께 인생 전반에 걸쳐 '선택'이라는 과정을 겪는다.

인생의 과정에서 시 공간적 상황에 맞추어 변화하는 욕망을 따라 이를 성취하고자 할 때, '어떠한 욕망을 취하는가'하는 문제가 생긴다.

진학, 결혼, 입사등 무한한 가능성의 시기에는 인간의 욕망이 더욱더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인간은 더 많은 문의 현상을 경험하게 되며 그에 앞서 더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은 급속한 변화와 함께 가정과 이념, 직장, 종교, 사회적 제도 등의 성격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때문에 유토피아에 대한 유혹도 다양해져 인간이 자신에게 부합되는 이상향을 찾는 것을 더욱 더 혼란하게 하고있다.

개개인의 욕망을 충족 시켜주는 통로로서의 많은 문들은 이러한 반복되는 욕망과 그 선택에 있어서의 혼란을 유발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인은 인간이 생에서 욕망을 따라 발생하는 통과와 전환, 선택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문의 현상을 연상하게 되었으며 이를 작품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 2. 작품의 형태적 근거

### 1) 門의 표현

문의 본래 기능은 공간과 공간을 매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을 통한 출입 행위는 대상하는 공간을 향해 ‘나가거나’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개입된다. 때문에 본인은 문을 여닫는 행위 즉, 출입행위 자체를 ‘욕망’하는 행위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문 개개의 표현은 본인이 주거하는 방문의 형태를 차용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작품의 근원이 본인의 일상적 심상에서 나온 것임을 암시하였다. 또한 문은 기본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동적 구조를 갖고있어 실제적으로 작품의 문도 경첩을 이용하여 여닫이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사실감을 높였다.

본고 에서는 이러한 설정하에 ‘문’이 본인의 작품에서 재해석되는 과정을 ‘동적표현’과 ‘반복적 구성’으로 나누어 생각해보았다.

사람들은 문의 상징성 때문에 그 형상만으로도 관념적으로 이미 움직임을 갖는 사물이라는 것을 감지한다. 하지만 실제로 경첩을 이용한 움직이는 문이 전시장에서 제시되었을 때 ‘관념’은 ‘현재’이자 실질적인 상황(Situation)이 되며 관람자는 습관적으로 이를 열거나 닫아보려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그 문은 형태에 있어 일반적 문과 같을 뿐 작게 축소시켜 표현하여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제작함으로써 실제적으로 ‘통과’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열고 닫는 일차적 행위에서 멈추게 된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이 일상의 문이 가지는 통과적 기능처럼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작용이지만 항상 결핍상태(들어가지거나 나갈 수 없기에)에 놓이게되기에 또다시 무언가 추구하게 되는

현상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또한, 본인은 이같은 문을 수적으로 증폭시켜 나열하므로서 그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즉, 하나의 출구가 아닌 다중의 출구를 제시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생의 과정에서 유토피아를 향한 문의 현상(통과, 전환, 선택 등의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됨을 의미함과 동시에 현대의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해 더욱더 광범위하게 표현되는 유토피아의 의미와 그로부터 야기된 ‘혼란’이라는 제2의 결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즉 하나의 공간에 다수의 문이 비정상적으로 중첩되거나 무의미하게 나열되는 표현을 통하여 수없이 제시되는 유토피아의 허상과 그 존재의미 자체에 물음을 던지는것이다.

결국, 본인이 문의 형상과 그 구성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욕망의 원리가 생에 있어 일상의 문의 현상처럼 필연적으로 발생되어지지만, 이러한 욕망의 연결고리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진정한 요구를 간과한채, 허상만을 쫓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 2) 門과 공간, 도입된 소재의 의미

현대 시각예술에 있어 퍼포먼스, 인스탈레이션(Installation)등 장르적 확대와 다양성은 전통적 의미의 회화나 조각을 관객과 유리된 작가의 독립적인 소유주의 개념에서 탈피토록 하므로서 전시공간을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환경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도 그러한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문과 그밖에 ‘하늘’, ‘붉은 카펫’, ‘계단’등의 상징적 소재와 이들이 전시공간 안에서 엮어내는 연계성으로 인해 작품의 메시지를 강조함과 더불어 관람자의 행위적 요소를 개입시켜 일상적 삶과 인간 욕망의 한 표현으로서 예술의 접목을 시

도하였다.

그 예는 [작품 2]와 [작품 3], [작품 5]에서 표현된다.

전시장을 가로지르는 '붉은 카펫'은 '초대', '입장', '유혹'의 의미로서 전시장 입구에서부터 시작되어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한 본 작품의 문으로 이어진다. 이 붉은 카펫을 밟은 관람자는 '전시장 입구'라는 실질적인 '문'을 통과하여 전시장 내부에 이르는 작품의 문(허구의 문)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미 새로운 세계로의 이행과 '유토피아'의 욕망에 빠져들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카펫과 본 작품의 문을 잇는 '계단'은 공간과 공간(상,하의 수직관계에 있는)을 잇는 매개이자 높은곳, 거룩한 곳으로의 '상승'을 의미하는 상징물로서 [작품 2]의 문이 '유토피아의 입구'임을 강조하는 소품이다. 또한 [작품 2]의 문들은 거울효과를 가지고 있어 전시장 내부 뿐 아니라 관람자들의 모습을 투영한다. 이때 거울에 투영된 관람자와 공간은 이미 수동적이거나 수용적인 관찰자가 아니며 능동적인 참가자가 되어 작품자체의 형성에 참여하게 된다.<sup>17)</sup>

그리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참여한 관객이 마지막으로 자신이 비춰지는 문을 '열고' '닫는' 행위를 하게 되므로서 작품이 진행됨과 동시에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즉, 이것은 공간+소재+신체+시간이 작가의 내부감정과 맞닥드려져 엮어지는 실질적인 상황으로 표출되어 작품의 의미를 더한다.

이러한 표현은 [작품 5]에서도 나타나는데 흘러내리듯 굽어있는 푸른문과 벽면의 회색 라인테일로 표현한 문틀을 연계하여 설치하여 작품의 일시성을 단적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색 라인테일로 벽면에 설치된 문틀은 일시

17) 조상현, 「조각에 있어 거울을 이용한 표현 확장에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논문, P.12

적으로 생성되었다가 ‘푸른 문’ 과 만나 의미를 가지게 되며 전시가 끝남과 동시에 사라져 의미를 상실하므로 공간과 시간성을 염두한 설치적 표현으로 욕망의 허무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밖에 선택한 소재로서 이상, 동경의 세계를 상징하는 ‘하늘’ 이 있다.

하늘은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동경과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때문에 새처럼 하늘을 날아 하늘 저편의 세계에 이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비행기’등의 항공운송 수단을 탄생시켰고 나아가 우주로의 여행을 꿈꾸게 했다.

때문에 하늘은 주로 ‘천국’이라는 비가시적 대상을 대체하는 상징으로 이용된다.

이러한 하늘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큐브(Cube) 형태로 제작한 [작품 3]의 경우에서, 큐브는 일반적으로 공간을 의미한다. 즉, ‘하늘로 만든 방’은 작가가 꿈꾸는 세계의 심리적 공간의 표현이자 허구의 공간이 되며 작품이 진행(전시)되는 공간에 또하나의 공간이 존재함으로써 ‘문’을 통해 ‘실 공간’(전시장)과 ‘허 공간’(하늘방)이 소통하게 된다.

이는 이상향을 꿈꾸는 본인의 내면 심상의 표현으로 자신만의 환상의 공간에서 사방으로 열린 문을 통해 실제적인 공간과 마주할 때의 공허함과 이를 통해 낙망하고 또다시 욕망하게 되는 과정이 시 공간을 넘나들며 반복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본인이 표현한 문은 공간, 도입된 소재, 관람자의 참여 등이 밀접하게 관계맺음으로서 작품의 의미를 강조함과 더불어 나아가 예술과 삶, 예술가와 관람자 사이를 좁혀보고자 하는 노력이자 궁극적으로 그러한 예술적 경험을 현실에서 하나의 유토피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작품분석

본인의 작품에서 표현된 문의 소재적 의미는 특별한 단일재료 즉, 흙, 석고, 나무 등 전통적인 조각 재료의 물성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것이 아니라, 문의 형상과 상징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고자 한 탐구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들의 형태는 모두 일정한 문양으로 표현 하였으나 스테인리스 스틸 미러로 제작하여 벽에 설치하거나 아크릴 상자에 달아 방문으로 연출하기도 하고, 그 밖에 합판, 무늬목, 압축합판, 철 등 여러가지 재료로 제작하여 그밖의 오브제들과 연계해 설치하는등, 재료에 따른 표현에 있어 조금씩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재료는 각각 다른 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람자로 하여금 같은 형태의 문이라 할지라도 그 물성에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더불어 문이 갖는 형태적 단순함, 즉 수직과 수평에서 오는 답답함을 재료적인 측면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이기도 한데, 이는 결과적으로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채롭고 환상적으로 이끌어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과 욕망의 다각적인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



[도판1] 파랑새 증후군 I, 압축합판, 혼합재료, 2003

## 1) 파랑새 증후군 I, 【작품1】

크기 : 144×21×86cm

재료 : 압축합판,경첩,혼합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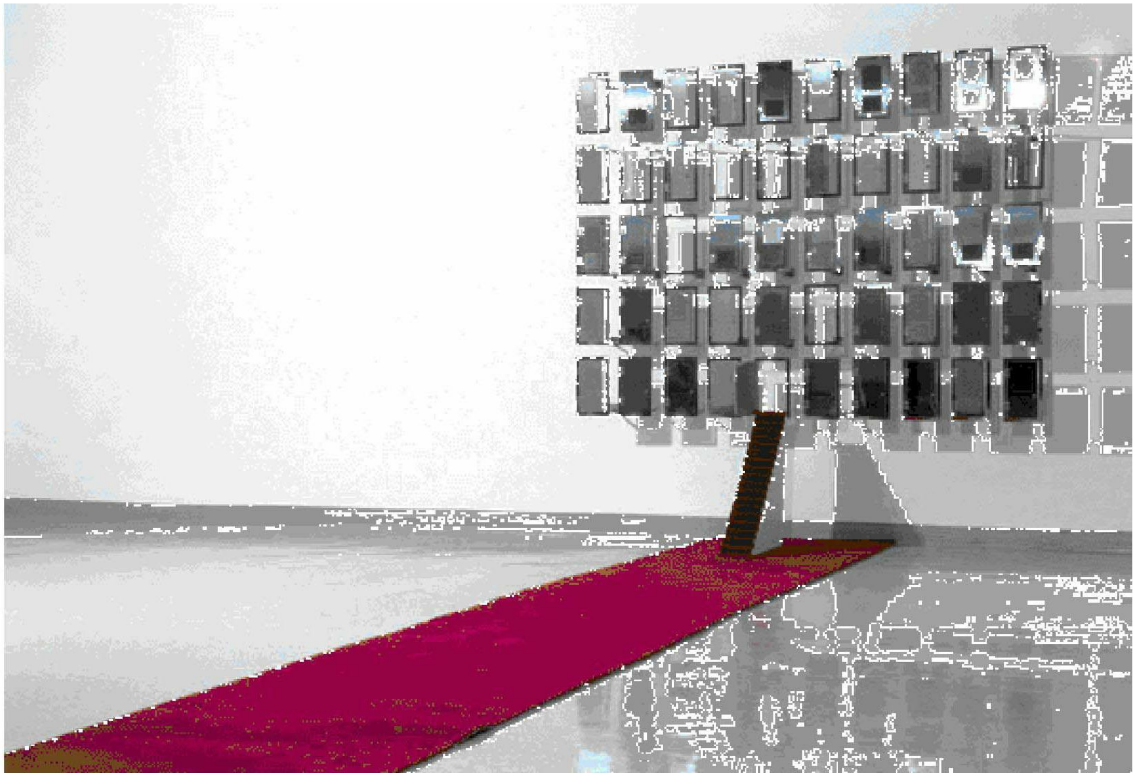
제작연도 : 2003

제작 방법 : 1.5cm의 압축합판을 이용하여 가로 72×21×86cm의 직사각 상자형태로 두 개의 틀을 제작한 뒤, 한쪽틀에는 10×25×0.5cm 크기의 문 14개를 제작하여 경첩으로 고정시키고 문고리를 달았다.

다른 하나의 틀에는 4면을 모두 막은 뒤 1개의 문만을 설치하였다. 각 틀72×21×86 의 크기는 10cm×25cm의 문 15개가 들어갈 크기를 계산하여 맞춘 크기로서 이 크기는 모두 전시장 내 우측 벽에 설치될 것을 감안하여 제작하였다.

이 작품에서 전시장 벽면의 일부분처럼 하얗게 도색한 작품은 마치 가정에서 흔히 볼수 있는 칸칸이 옷장을 연상케 하기도하고 아파트를 연상하게도 한다.

이는 잘 짜여진 현실세계에서 많은 이상향의 문이 제시되고 있으나 정작 내가 가고자 희망하는 출구는 막혀있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음을 즉, 유토피아는 허구적 대상 일 수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전혀 출구가 있을 것 같지 않은곳에 실낱같은 출구가 존재함으로 해서 또 한번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 이중구조를 표현한 것이다.



[도판2] 파랑새 증후군Ⅱ,스테인리스 스틸,혼합재료,2002

## 2) 파랑새 증후군 II, 【도판2】

크 기 : 2000×147.5×32cm

재 료 : 스테인레스 스틸(미러),경첩, 붉은카펫, 합판, 스텐구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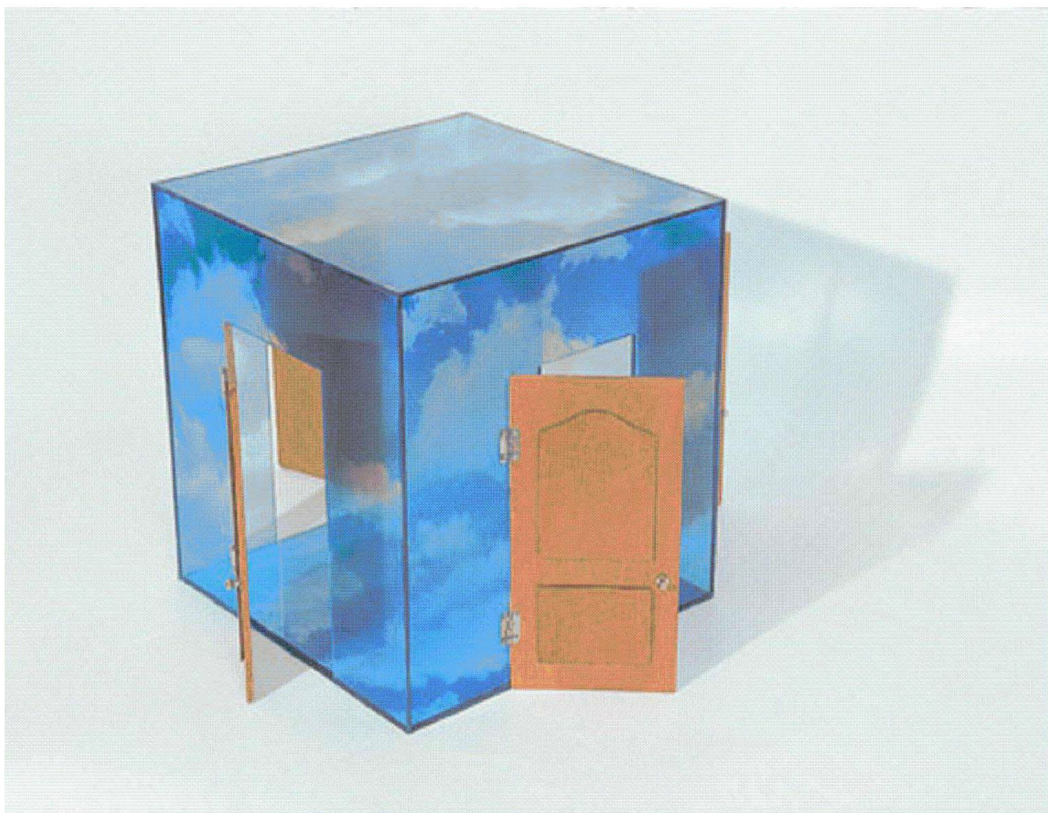
제작연도 : 2002

제작방법 : 1.5t의 스테인레스 스틸(미러)을 걸 문틀: 15.5cm×25.5cm, 안 문짝: 12.5×20.5cm로 50개씩 레이저 절단하고, 절단된 문짝 위에 별도의 레이저 절단한 문양을 접착제로 접착한뒤 문짝을 문틀 프레임에 경첩으로 고정하였다. 경첩으로 고정된 문틀은 전시장 벽면에서 30cm 떨어져서 설치되도록 사각봉을 30cm로 절단하여 상단 중앙에 각각 용접하고 1.8cm두께의 압축합판위에 문틀사이의 간격이 5cm가 되도록 각도계를 사용하여 표시한뒤 피스를 박아 고정시켰다. 문 고리의 느낌은 손잡이 부분은 스테인레스 미러의 느낌을 맞추기 위하여 스텐구슬을 볼트위에 붙이고 너트로 문에 고정하였다. 아래 하단부의 계단은 압축합판을 이용하여 제작한 뒤 붉은 융단을 접착하였다.

이 작품은 스텐미러의 거울효과를 이용하여 전시장내부의 모습과 관람객의 모습을 작품으로 적극 끌어들려 의도한 작품으로서 전시장 입구로부터 시작하여 본 작품에까지 이르는 길을 유도하는 붉은 카펫을 깔아 관람자가 전시장입구를 지나 카펫을 밟는 순간 이미 '욕망'에 빠져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작품이 마주 비추고있는 전시장은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있어 자연광과 그 밖의 전시장풍경 까지도 다각적으로 비춰지며 이로인해 문을 여닫을때마다 빛이 산란되어 무지개빛 반짝임을 연출해 인간이 가진 욕망의 다채로움을 강조한다.

또한, 문틀과 문은 모두 1.5t의 얇은 두께로 제작하여 관람자가 문을 열고 닫을 때 마다 미세하게 진동한다. 이것은 스텐등 철이 주는 강한 느낌 보다는 최대한 날카롭고 가벼운 느낌을 의도한 것으로 인간이 갖는 각각의 단편적인 꿈들의 일시성과 불안정한 유토피아의 유혹을 상징한다.



[도판3] 파랑새 증후군Ⅲ,아크릴,혼합재료,2003

### 3) 파랑새 증후군Ⅲ, 【도판3】

크 기 : 40×40×40cm

재 료 : 판형 아크릴, 실사출력 시트, 합판, 무늬목, 경첩

제작연도 : 2003

제작방법 : 5t의 판형아크릴을 가로 세로 40cm 로 절단하여 그중 4개의 판 하단부에 12.5cm×25cm의 직사각 홈을 파 정육면체의 입방체를 제작하였다. 제작한 입방체 표면에는 하늘 이미지 사진을 투명 시트지에 실사출력하여 6개의 면에 모두 붙인 뒤 직사각의 홈을 파낸부분의 시트지는 칼로 잘라내었다. 위의 입방체 4면에 설치된 문은 두께 0.5cm의 합판을 12.5cm×25cm로 절단한 뒤 문이 잘 닫히도록 하기위하여 사면에 각을 쳐주었다. 문짝위의 문양은 0.2두께의 얇은 합판에 별도로 그려 절단 한 다음 절단한 문위에 접착제로 붙이고 마른 뒤 사포질하여 정리하였다. 정리가 끝난 문짝위에는 무늬목을 덧붙여 나무문짝의 느낌이 들도록 제작하였으며 이를 경첩을 이용하여 4면에 고정하여 완성하였다.

‘하늘로 만든 방’은 내부적으로는 작가의 내적 공간으로서 자신이 설정한 유토피아의 모습(하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사방으로 열린문을 통하여 그 세계와 만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문밖의 세상과 마주했을 때 허탈감을 느끼고 외부에서 또다시 아름답게 보이는(하늘) 세계로 가고자하는 욕망의 구조를 표현한 것이다.



[도판4] 파랑새 증후군Ⅳ, 합판, 무늬목, 혼합재료, 2003

#### 4) 파랑새 증후군Ⅳ, 【작품4】

크 기 : 25×25×45cm

재 료 : 압축합판, 경첩, 무늬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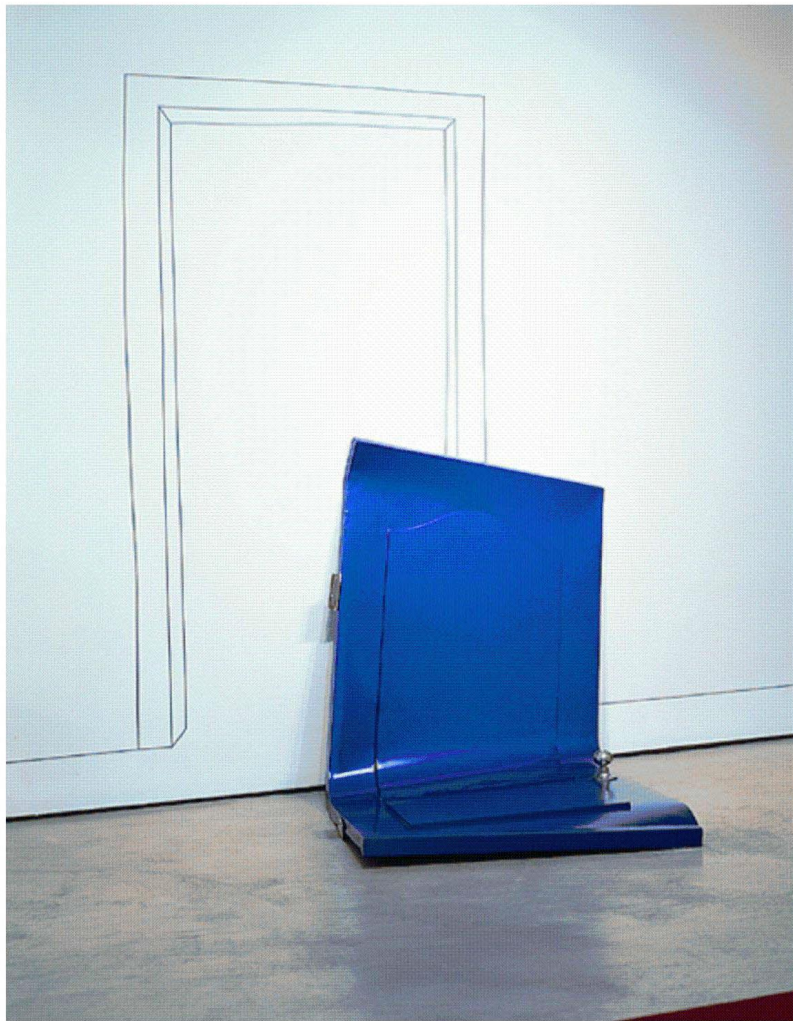
제작연도 : 2003

제작방법 : 합판을 이용하여 틀을 제작한 뒤 무늬목을 붙여 마감하였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틀안에 설치될 21×41cm 크기의 문짝을 4개 제작하여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3개의 문이 차례로 중첩되게 설치하여 앞으로 열리고 나머지 1개의 문은 뒤로 열리도록 틀에 경첩으로 틀에 고정하였다.

인간이 가지는 욕망은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기 보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자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계속되는 탐구와 동경속에 현실에서 드러나지 않는 무엇을 외부적 현실을 통해서 채우려 수없이 시도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관람자는 문 저 편에 위치한 이상향에 이르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것에 도전하는 (문을 열게되는) 행위를 반복하게되며 이러한 문의 반복적 설치를 통해 욕망의 속성을 말하고자 하였다.



[도판5] 파랑새 증후군 V, 철, 오브제, 2003

## 5) 파랑새 증후군 V, 【작품5】

크 기 : 100×75×110cm

재 료 : 철, 문고리, 경첩, 자동차용 특수 페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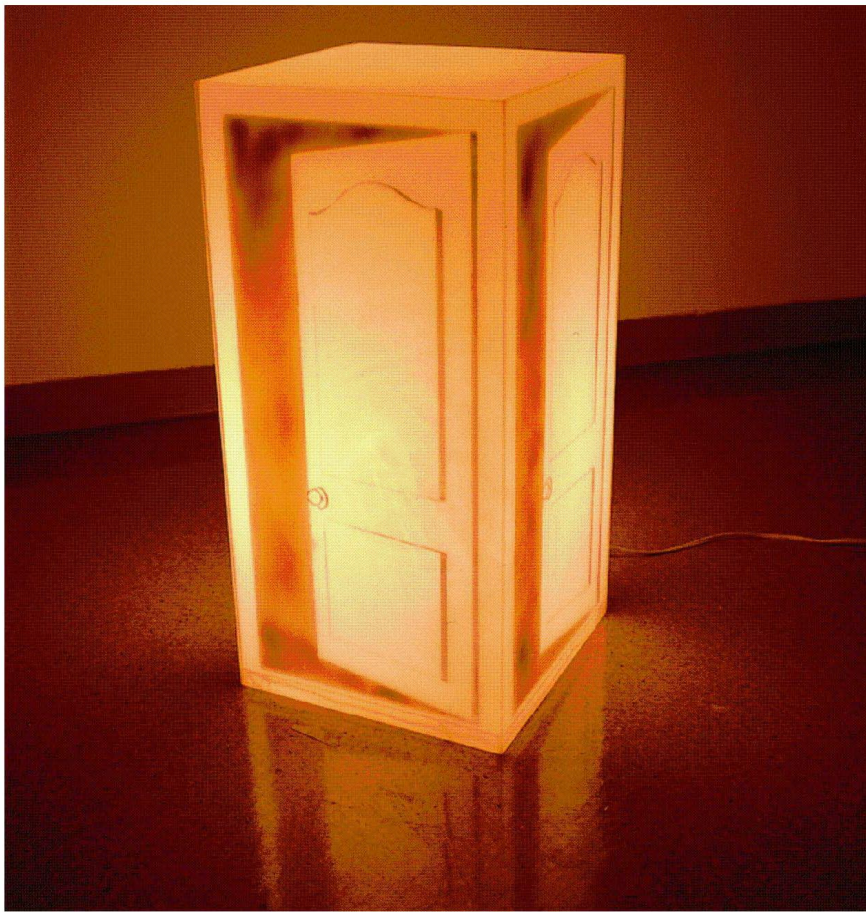
제작년도 : 2003

제작방법 : 1t의 철판을 90×180cm로 자른후 사선으로 밴딩하고 옆 문짝의 두께(3cm) 부분과 문짝위의 문양(1cm) 부분을 따로 올려내어 두께를 주고 문양을 올려붙여 용접하였다.

그 뒤에 푸른색과 펄이 배합된 자동차용 특수페인트로 도장하고 경첩과 문 손잡이를 피스로 고정시켰다.

벽면에는 문틀 모양을 회색 라인테잎으로 처리하여 평면적인 벽면의 문틀과 입체의 문을 연계하여 설치하였다.

회색 라인테잎을 이용하여 벽면에 표현한 '문틀'은 이미 흔적만 남은 '과거'를 상징하며 그 앞에 놓인 구부러진 푸른 문은 '현실이 되어버린 꿈' 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즉 푸른문이 구부러져 무용지물이 되었듯이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꿈이나 현실의 꿈도 보다는 미래에 가치를 두는 욕망의 원리에 의해 그것이 비록 과거에 '거대하고 아름다운 것' 이었다 할지라도 현재 추구하는 욕망에 비해 무의미 할 뿐이다



[도판6] 파랑새 증후군VI,아스텔,혼합재료2003

## 6) 파랑새 증후군 VI, 【작품6】

크기 : 35×35×70cm

재료 : 판형 아스텔(흰색), 전구, 전선, 스프레이형 도색제

제작년도 : 2003

제작방법 : 흰색 반투명 아스텔(아크릴의 일종)을 35×70cm크기 4개로 절단하여 뒷면에 오토카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표현한 문 도면을 그려넣었다.

문 그림은 플라스틱과 유리전용 도색제를 이용하여 반투명의 느낌이 그대로 유지 되도록 하였다.

도면이 그려진 네 개의 판이 서로 맞물리는 면을 45° 각도로 컷팅한 뒤 접착하여 접착부위가 보이지 않도록 하였으며 위와 아래 부분을 막아 직사각의 박스형태로 만든뒤 아래부분을 여닫을수 있도록 제작하고 내부에 조명을 설치하여 조명을 켜올 때 마치 실제 문을 열고 들어갈수 있을것만 같은 착시를 유도하였다.

인간은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을 지니게된다. 이처럼 욕망은 두려움이나 어려움 속에서 더욱 강력해지며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도 한다. 이는 현재의 충족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마치 야밤에 희미한 간판처럼 실낱같은 꿈이 존재하기에 또다시 욕망 하게됨을 의미한다.



[도판기] 전시광경, 2003

### Ⅲ. 결 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파랑새 증후적 현상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다를 뿐 인생에서 누구나 한번씩 거치는 과정이라 한다. 즉, 인간은 누구나 가슴속에 욕망을 조금씩 품고 있다는 것이다.

본인은 그 욕망에 대한 해석을 인간의 삶에 있어 부족이자 동시에 생산이며, 파괴이자 시도로서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필요 악'의 존재로 보았으며 그 근원은 인간의 유토피아이즘에서 기인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본인이 마주하는 일상에서 문을 넘나들이 유토피아를 향한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방향들과 다르지 않음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작품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제, '욕망의 문'을 열고 나아갈 것인가 혹은 빗장을 닫아걸어야 할 것인가의 결정은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주체의 몫으로 돌리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의 생에서 끊임 없이 생성되는 욕망의 본질을 밝힘으로서 본인이 진정 추구하고자 했던 유토피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되짚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과 방향이 결정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한 사람의 작가로서 본인의 사적인 영역을 넘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즉 이상향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본인의 작품에 참여케 하고 그들과의 소통으로 재 창조된 작품을 통해 예술을 현실세계에서 하나의 유토피아의 대안으로서 제시하고자 함에 있었다.

본인이 '문'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그 출입행위가 갖는 상징성을 인간의 '욕망'으로 해석함에 있어 그 형태와 표현상 그러한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메시지를 담아내기에 다소 모자람과 서툰을 느끼지만 본인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앞으로의 작업에 임함에 있어 본인에게 새로운 통로로 작용할 것을 믿으며, 다시금 예술이라는 '문 앞에 서있는 자'로서 더욱 더 겸허한 자세로 문 너머의 세계를 깊이있게 탐구해 가고자한다.

## 참 고 문 헌

### <단 행 본>

1. 멜빈 레이더, 버트럼 제섭, 「예술과 인간가치」, 김광명, 까치글방, 2001
2. 리처드 해리스, 「파라다이스」, 손덕수 역, 증명, 1999
3. 아놀드 하우스저, 「예술사의 철학」, 황지우, 돌베개, 1983
4. 와타나베 마모루, 「예술학」, 이병용역, 현대미학사, 1994
5. 에른스트 블로흐, 「희망의 원리」, 박설호역, 솔 출판사, 1995
6. 자크 라캉, 「욕망이론」, 권택영 역, 문예출판사, 1994
7. 최봉영, 「주체와 욕망」, 사계절, 2000
8. 칼 구스타프 융, 「사람과 상징」 정영목 역, 까치, 1995
9.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8
10. 허버트 리드 「예술의 뿌리」, 김기주, 현대미학사, 1998
11. 위슬리 칸딘스키,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 열화당.

1998

12. 티에리 파코, 「유토피아」, 조성에 역, 동문사, 2002

### <학위논문>

황현아, 「반복기법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포스트모던시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2

이정우, 「현대조각에 있어서 Installation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1994

이성심, 「문의 상징적 표현」,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0

정선아, 「문의 상징적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2

이승은, 「에른스트 블로흐의 예술철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8

조상현, 「조각에 있어 거울을 이용한 표현 확장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  
논문, 2002

<참고 사이트>

<http://www.italcinema.com/review/review3.htm>

<http://www.masilga.com/philosophy/Concept/synconcepts19.asp#1>

# ABSTRACT

A Study on the Desire through the Symbolical  
Expression of Door

- Centering around My Work -

**Park, Ji Yeon**

**Sculpture Major**

**Dept. of Plastic Arts**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life of human beings is in the continuity of desire to spout endlessly.

The continuing pursuit of money, fame, power and sex in the life of actuality may be interpreted from this context.

I came to study which meaning the desire that human beings try to arrive at utopia by transcending actuality has for human beings and came to recognize that the existence meaning of art and artist is the action to try to arrive at utopia through work by transcending actuality, by considering that the cause of this desire is in utopiaism at the same time.

In my work, I recognized the meaning for utopia in human beings and the desire of human beings as the form of door and the action of entrance and exist and expressed it like this.

This thesis is composed of 3 chapters totally as what described theoretical background, formal base, expression method and intention etc. on the subject of my work.

In the introduction of chapter 1, this researcher summarized the relation between human beings and desire and described study goal, study method and category.

In the main discourse of chapter 2,

1. This researcher clarified that the origin of desire is in the utopiaism of human beings by analyzing desire through the theory of Lakang as the spiritual background of work and described my thought for art as the embodied expression action of desire. In addition, this researcher clarified the expression basis of work by discussing the symbolical nature that door has.

2. This researcher discussed the course that the form of door is reinterpreted in my work as the formal base of work and described the introduced material and the connection nature of space.

3. In the analysis of work, this researcher expression material, technique and intention etc. with work plate.

In the conclusion of chapter 3, this researcher arranged the human desire and utopia that I tried to express through work and my view for art and clarified future work attitude. .